

특허 기반 연구개발(IP-R&D) 확산, 민간이 주도한다!

- 특허청, '24년 '제5기 특허 기반 연구개발(IP-R&D) 협의회 운영위원회' 개최(5.27) -
- 특허 기반 연구개발(IP-R&D) 참여 기업 등과 운영방안 논의 및 현장 불편사항 청취 -

특허청은 5. 27.(월) 15시 한국지식재산센터(서울 강남구)에서 민간 주도로 특허 기반 연구개발(IP-R&D)를 확산하기 위한 '제5기 특허 기반 연구개발(IP-R&D) 협의회 운영위원회'를 열어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불편사항을 청취한다고 밝혔다.

특허 기반 연구개발(IP-R&D) 협의회*(이하 협의회)는 특허청의 '특허 기반 연구개발(IP-R&D) 전략지원' 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중심으로, 성과를 공유·확산하기 위해 '14년 4월 결성한 민간 자율협의체(現 105개 기관)이다.

* '지식재산혁신기업협의회' 에서 '특허 기반 연구개발(IP-R&D) 협의회' 로 명칭 변경 ' 24. 2월)

【특허 기반 연구개발(IP-R&D) 전략지원】

- 지재권 전략 전문가와 지재권 분석기관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기업 등의 연구개발(R&D) 현장에 맞춤형 상담(컨설팅)을 지원
- 전 세계 특허정보를 분석해 ①최적의 연구개발 방향 설정, ②해외 특허장벽 극복, ③특허 기술 공백영역에 대한 유망특허 선점 등을 지원해 중복연구 방지 및 연구개발 효율화 도모

이번 회의에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제5기 협의회 회장(에이피시스템 김영주 부회장) 및 부회장(에이라이프 강상진 대표, 에이트테크 류재호 이사) 등 운영위원들이 참여해 ▲ 협의회 운영·발전방안 ▲ 분과별 연구 주제 선정 ▲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.

'14년 출범 이후 협의회는 ①산·학·연의 최고 경영자(CEO)·최고 기술 경영자(CTO)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와 ②연구원 등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된 연구분과를 구성해 특허 기반 연구개발(IP-R&D) 방법론 연구,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등을 중심으로 활동해오고 있다.

올해는 특허 기반 연구개발(IP-R&D) 연구분과, 기획·혁신분과 2개의 분과를 중점적으로 운영해, 기업 입장에서 정책 제언 및 특허 기반 연구개발(IP-R&D) 방법론 고도화 연구에 집중할 예정이다.

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“특허 기반 연구개발(IP-R&D)는 우리기업이 연구개발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연구개발(R&D) 효율화 수단”이라며 “특허 기반 연구개발(IP-R&D)가 연구개발 현장에 확산되도록 협의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※ 붙임: IP-R&D 협의회 개요

담당 부서	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창출전략팀	책임자	과 장	신원혜 (042-481-8254)
		담당자	주무관	구자훈 (042-481-5059)

□ 개요

- IP-R&D 전략 확산을 위한 민간 주도의 자율협의체 필요성 대두
 - 사업 참여기관을 중심으로 IP-R&D 민간 확산을 위해 협의회 출범('14년)
 -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조직 재편('23.8.) 및 제5기 협의회 출범('23.11.)
 - * 제1기('14~'16) : 60개 기관, 제2기('16~'18) : 161개 기관, 제3기('18~'21) : 183개 기관, 제4기('21~'23) : 73개 기관, 제5기('23~'25) : 105개 기관

< 제5기 IP-R&D 협의회 >

- **(현황)** 총 105개 기관(기업 79개, 연구기관 6개, 대학 9개, 특허사무소 등 유관기관 11개)
- **(조직)** 산·학·연 CEO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,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분과위원회로 구성



□ 주요 활동

- **운영위원회**는 협의회 운영 총괄, **분과위원회**는 IP-R&D 연구 및 신규사업·정책 제언 등을 중심으로 활동

구분		역 할
운영위원회		■ 협의회 총괄 운영 및 중요 사항 의결 ■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현장 의견 공유·수렴, 발전 방안 제시
분과 위원회	IP-R&D 연구분과	■ 기업 관점의 신규 IP-R&D 유형 연구 및 고도화
	기획·혁신 분과	■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및 신규 지원 사업 제언